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5010-4614  
광고문의 : 0821-1122-8827, 0815-1066-5868

VOL. 108  
2025/12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STRUCTION IN INDONESIA

##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의회 2025년 제5차 워크숍 및 송년행사 치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조성태 국토관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의회 황의상 회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현 회장



▲아세안대표부 양종호 국토관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의회(회장·황의상)는 지난 3일 2025년 제 5차 정기워크숍 및 연말송년행사를 PIK DAMI INDIA CC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조성태 국토관을 비롯해 아세안대표부 양종호 국토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김종현회장, KOSA 장윤하회장, 재인도네시아완구협회 강선학회장등 많은 외빈인사와 회원사가 참석해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2026년을 적토마처럼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한 해로 만들어 보자는 분위기와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맹그로브 환경 복원을 위한 IBF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으며 한인

포스트와 콤파스에서 행사장에 나와 분위기를 형성해 주었다 맹그로브는 단순한 해안식물이 아니라 핵심적인 자연자원으로 해안 침식방지, 탄소흡수, 어류 및 해양생물 서식지 제공, 지역사회 생계 기반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행사에 재인니 한국건설업의회와 각 회원사 기업들이 즉석에서 기금모금을 실시하여 96,000,000루피아의 기금을 만들어 CSR, ESG에 협회 차원에서 한 걸음 내딛는 자리를 만들었다. 황의상 회장은 올해 힘겨웠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2026년 적토마의 해에 우리 기업들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건설협회에서 애써겠다고 했으며 맹그로브 IBF가 행사를 하는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조성태 국토관은 올 12월 임기를 마치고 귀임하게되어 아쉬움을 표했으며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의회는 여러 직능단체에 비해 강하고 단단한 단체라고 했다.

양종호 아세안대표부 국토관 역시 올 12월 임기를 마치고 귀임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겹쳐야 인연이 된다면서 그간의 인연에 감사하고 협회에서 우리기업 잘 쟁겨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인도네시아 시장이 그리 쉽지 않지만 회원사

사를 표했으며 협회의 성실함과 서로 돋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했고 건설협회의 많은 행사와 활동에 한인회에서도 적극 협조 하겠다고 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의회는 1972년 한국건설기업의 첫 진출 이후 반세기 이상을 꾳꿋하게 버티고 성장하며 인도네시아내 한인기업의 말형으로써 한인동포의 길과 터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2025년을 보내고 다가오는 2026년 한인동포와 건설기업과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의회가 함께 달리는 멋진 한 해를 만들어 낼 것이라 본다. [편집부]



▲맹그로브 후원금 모금후 기념촬영



###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 인니 임금 규정 지연에 기업 불안…투자 계획도 차질



▲2025년 5월 1일 자카르타 모나스(Monas)공원에서 열린 2025 국제 노동자의 날 (May Day) 기념 행사[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새로운 최저임금 공식 발표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경영자들은 불안해하고 내년 예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6일 전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공식을 발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인 11월 21일을 놓쳤고, 11월 3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금도 발표해야 한다. 야시에를리 인력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가 지방 최저임금을 산정 방식을 설명하는 새로운 규정을 아직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에 따르면, 기업들이 장부를 정리하고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막판 변화가 제조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영자협회 노동부 책임자 볼아잔은 25일, “기업이 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연말에 더 이상 공식 변경이 없기를 바란다”며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9월 경 연간 업무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는 “너무 늦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인력부는 정부가

지역과 도시 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되는 공식이 올해 사용되는 공식과 다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영자협회는 정부가 정부규정 제51/2023에서 정한 임금 산정 공식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식은 지역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지역 생산성 및 비즈니스 역량을 반영한 지수를 기반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협회는 각 지역의 생활비 수준의 격차를 반영하고, 생산성 지표와 부문별 비즈니스 강도 지표를 더 잘 통합하여 지수에 더 정확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임금 인상이 무리없이 “비례적”으로 이루어져 특히 비용에 민감한 부문에서 “산업 안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특히 임금 변동성에 취약하다. 이는 노동력이 총 생산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이전하지 않고는 예상치 못한

임금 인상을 감당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협회 부의장 산니 이스칸다르는 임금 관련 불확실성이 특히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미 일부 기업은 생산 이전 등 운영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사업의 불확실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산니는 국내 이전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최근 공장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산니는 빠르게 수비안 또 대통령의 8% 경제 성장 목표가 제조업과 실물 부문의 강력한 성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는 궁극적으로 고용과 공급망 활동에 달려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명확한 임금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지난 한 해 동안 제조업 기반의 점진적인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상반기 해고자가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제조업, 소매업 및 광업 부문에서 발생했는데, 인력부는 이를 수요 약화, 생산량 감축, 비즈니스 모델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SK어스온, 인도네시아 유망 광구 ‘노스케타팡’ 지분 34% 확보… 연내 탐사정 시추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 개발 자회사인 SK어스온은 지난 23일 페트로나스 노스케타팡 주식회사로부터 인도네시아의 유망 광구인 ‘노스케타팡(North Ketapang)’ 지분 34%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바섬 북동부 인근 해상에 위치한 노스케타팡 광구는 동남아 주요 산유국인 인도네시아의 자원 개발 광구 중에서도 유망한 광구로 꼽힌다. 광구 인근에서 기존 원유 생산층 외에 새로운 원유 생산층이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원유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SK어스온은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확장해왔다. 지난 5월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주관 광구 경쟁입찰에서 세르팡(Serpang), 비나이야(Binaiya) 광구 지분을 따낸 바 있다. 이번 노스케타팡 광구 지분을 포함해 이 회사



▲SK어스온 인도네시아 광구 위치도 / SK이노베이션 제공

는 인도네시아 내 3개 광구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SK어스온 측은 “세르팡과 노스케타팡 광구는 자바섬 북동부 해상에 인접해 있어 사업적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앞으로 SK어스온은 페트로나스 노스케타팡 주식회사(광구 지분 51%), 페르타미나 노스케타팡 유한회사(광구 지분 15%)와 함께 노스케타팡 광구 자원 탐사를 진행하게 된다. 3사는 올해 안에 탐사정 시추를 목표로 자원 개발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SK어스온 관계자는 “이번 노스케타팡 광구 지분 확보는 동남아 자원 개발 클러스터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미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인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인도네시아도 글로벌 핵심 자원 개발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PT. HANINDO EXPRESS UTAM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 한결같은 안전운송을 자랑하는 프로젝트 물류 전문업체(Since 1993)

#### 업무안내

- 수출입 화물 통관 및 해상, 항공 운송
- 프로젝트 특별허가 최근 수행 (PIBB, MASTER LIST, SKB PPN)
- 프로젝트 카고 및 건설 장비 운송
- 특수 장비 국내외 운송 및 통관 (중고장비 포함)
- LCT/BARGE TRANSPORTATION

#### 중요수행 프로젝트

- Lotte Chemical LINE Project
- Grati CCPP Power Plant Project
- Rajamandala Hydroelectric Power Plant Project
- INAS Asahimas Chemical Project
- Suban & Sumpal (Phase 1&2) Gas Project
- Bosowa Cement Project

주 소 : Granadi Building 7th Floor South Wing, Jl.H.R Rasuna Said Kav, 8-9 Kuningan Jakarta 12950 – INDONESIA

이 메일 : project@hanindo.net 홈페이지 : [www.hanindoexpress.com](http://www.hanindoexpress.com)  
전 화 : +62-21-2525-123 (Hunting) Fax : +62-21-2520-551/556  
HP : +62-81-848-5570 (Mr. Cho) Hp : +62-811-816-0627 (Mr. Shin)

## 외국인 투자자들, 인니 대통령의 국가 주도 방식 저울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빠라보워 수비안도의 경제 정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빠라보워가 추진하는 '톱다운 투자 (top-down investment), 즉 국영 기업(BUMN)이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를 통해 더 큰 역할을 맡는 방식이 과연 새로운 해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빠라보워의 리더십의 효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전직 군 장성인 빠라보워의 접근 방식이 인도네시아의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한다.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돈나 빠리아디 상무이사는 미국 상공회의소와의 공동 투자보고서 발표에서, "빠라보워가 전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더 대담한 정책 전망과 눈에 띄게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외교 정책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도적 환경" 때문에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정책이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빠라보워가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감독하던 부문에서 군 관련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더욱 중앙집권화되고 안보 중심의 국가기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규제 투명성이 복잡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영기업의 역할을



▲자카르타 SCBD 야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강조하는 빠라보워의 국가 주도 모델이 외국인 투자를 크게 늘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들은 다난따라가 자카르타-반동 고속철도 우쉬 ('Whoosh') 사업의 막대한 부채를 처리하는 데 매진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다난따라가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맡게 되더라도 민간기업에게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질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돈나는 "세계 경제가 점점 더 통합됨에 따라 보호주의적 입장이 성장을 저해하고 원치 않는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OECD 및 G20 기준에 따라 국영기업과 민간 부문 간의 공정하고 동등한 경쟁의장을 조성하면 인도네시아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주재 유럽 상공회의소(EuroCham) 회장 파비안 키블레(Fabian Kieble)는 9월에 체결된 EU-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서 강조된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럽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블레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유럽은 아직 인도네시아의 주요 투자국은 아니지만, CEPA 발효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빠라보워의 국가 주도 모델과 다난따라에 대한 유럽 투자자들의 참여 여부는 투명한 조달 절차 및 공정한 경쟁을 포함한 국제 비즈니스 표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난따라가 이러한 기준을 유지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한다면 더 많은 유럽 자본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및다운스트림부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전체 투자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지만, 국내 자본이 3분기 연속으로 외국투자 유입을 초과하면서 균형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상공회의소(KoCham)의 이강현 회장은 지난 18일, 빠라보워의 다난따라를 통한 국가 주도 접근 방식이 "분명한 야망을 보여준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다 명

확한 장기 비전과 우선순위 부문 전반에 걸친 일관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현 회장은 한국의 투자가 장기적인 노력 덕분에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신규 투자 뿐만 아니라 섬유 부문 같이 고용이 많은 기존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니켈과 배터리와 같은 신흥 산업 분야에서는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과 중국 기업을 포함한 특정 경쟁업체와의 경쟁 압력이 장기적인 도전 과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최고 파트너로 남을 수 있을까?

중국은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의 최대 경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2015년 6억 달러였던 외국인직접투자는 2024년까지 80억 달러 이상으로 1,300% 이상 급증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투자국이었으며, 중국 기업들은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내 사업을 전기차 공급망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5년 3월 기준 총 출하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미국과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의 투자 규모와 프로젝트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러 차례 특정 국가에 특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어디서든 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무

함마드 하비브 아비얀 자끄완은 지난 18일,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지속된 것은 주로 "엘리트층의 요구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소비 수준"이 중국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엘리트들은 조건이 거의 없고,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투자를 선호하고, 인도네시아의 성장하는 시장은 여전히 저렴한 상품 선택지가 제한적이어서 중국산 제품이 잘 맞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인도네시아가 한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이미 투자 파트너를 다각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역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비브는 빠라보워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방식의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자 믹스를 재조정하려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나 새로운 무역 협정만으로 부족하고, 법적 안정성, 강력한 반부패 집행, 숙련된 노동력,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자재 공급, 건전한 경쟁 환경 등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국가로, 올해 첫 9개월 동안 126 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도 127 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며, 그 뒤로 말레이시아와 일본이 뒤따르고, 미국과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NEXFIL**  
대한민국 K-브랜드

## 넥스필 건축용 윈도우 필름

30년간의 제조 노하우로 **MADE IN KOREA** 정품시공과  
최상의 보호효과를 제공합니다.

뛰어난 열차단 단열효과

유해 자외선 99.9% 차단

냉난방비 연간 30% 절약

쾌적한 실내 환경

외부 시선차단 및 프라이버시 보호

내부 반사 개선 및 선명한 시인성



제품 및 시공 상담

021 3886 5163

0811 133 2290

0856 874 6625

PT RMAX UTAMA INC

Rukan Avenue Jakarta Garden City(JGC) No. 8-030, Jakarta Timur, 13910

www.nexfil.com

www.nexfil.co.id

@nexfil.id

Tel : 021 3886 5163

Nexfil Indonesia

## K-스마트농업 기술 전수... 인도네시아 스마트팜 확산 기반 마련

농식품부·농정원,  
‘한·인니 청년농업인 소득향상 사업 공동 이양식’ 개최



▲(왼쪽부터) 이다 위디 아프산티 인도네시아 농업인력개발원 원장, 문경덕 농식품부 서기관, 안재록 농정원 부원장이 사업 이양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지역의 케이(K)-스마트팜 구축이 이양단계까지 완료돼 스마트팜 확산의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농업부 중강당에서 인도네시아 농업부 농업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K-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밀레니얼 농업인 소득개선 사업’ 완료보고와 이양식을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인도네시아 말랑과 보고르 지역에서 K-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기술을 전수해 농업기술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이양식에는 한국 농식품부와 인도네시아 농업부 등 양국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5년간의 사업 추진 결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구축된 스마트팜 시설과 운영시스템을 인도네시아 측에 공식 이양했다.

농식품부·농정원은 인도네시아 현지 기후 여건에 맞도록 토마토, 파프리카, 멜론 등 고품질의 고부가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재배·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사업으로 한·인니가 공동 개발한 브랜드 ‘NAKOR FARM’으로 수라바야 지역 마트인 Hokky의 4개 지점에서 멜론, 토마토, 파프리카를 판매,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더불어 한국이 전수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저온저장, 포장 개선·품질 유지관리 체계는 농산물의 신선도와 상품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K-스마트팜에서 생산·판매되는 농산물 수익으

로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도 구축했다. 실제 505명의 인도네시아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농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했으며, 교육 수료 후 현지 여건에 맞게 온실을 개선하거나 수경 재배시설 도입해 약 5배의 농업용수 절약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 자밀(Ali Jamil, M.P.) 인도네시아 농업부 사무총장은 이양식에서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농업 인적자원 교육의 강화, 농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같은 큰 혜택을 가져왔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에 안재록 농정원 부원장은 K-스마트팜의 가시적인 성과에 만족을 표하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지속해 스마트농업 기반의 청년농업인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 애경케미칼, 인도네시아 계면활성제 공장 인수 체결 글로벌 생산지도 완성...” 시장 선점 우위 기대

애경케미칼이 최근 인도네시아 계면활성제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의 청양공장, 베트남 AK VINA에 이르는 글로벌 생산지도를 완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애경케미칼은 글로벌 거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현지 고객사에 대한 영업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계면활성제는 소비자와 산업용 제품 모두에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계면활성제 함유 제품 소



▲표경원 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애경케미칼 임직원들이 새롭게 인수한 에보닉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애경케미칼]

비가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애경케미칼은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공장의 자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계면활성

## GS건설, 인도네시아 주택개발시장 출사표

GSDI, 이스톤그룹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추진  
빈타로 지역 3헥타르 부지에 중산층 주택 건설 목표  
인도네시아 주택시장, 2030년까지 520억 달러 성장 전망

GS건설이 인도네시아 주택시장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도네시아 주택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GS건설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지 주목된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기업 이스톤 그룹(Easton Group)은 23일(현지 시간) GS건설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GSDI(GSENC Development Indonesia)와 빈타로 지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SDI는 GS건설의 해외 계열사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에서 주택 및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GSDI와 이스톤 그룹은 조인트 벤처 방식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남부 탕에랑 빈타로 지역 내 3헥타르 부지에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신호철 GSDI 대표는 “빈타로 지역은 주택 수요가 상당히 높은 곳 중 하나” 라며 “입지와 독특한 디자인,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S건설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GSDI(GSENC Development Indonesia)가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기업 이스톤 그룹(Easton Group)과 빈타로 지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사진=이스톤 그룹)

이번 프로젝트 추진은 인도네시아 주택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결과로 해석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컨설팅 기업 모르도르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택시장은 올해 480억 달러(약 70조6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520억 달러(약 76조54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주택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PPN) 감면 혜택도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다.

THE GURU

캄보디아 일대를 서남쪽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호주 시장을 커버함으로써 고객사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계면활성제를 현지 조달 받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애경케미칼은 보다 수월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현지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생산과 물류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아이뉴스 24



## 대한민국 1위 전선회사 LS전선, 인도네시아에서도 자랑스런 1위입니다



저압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 [글로벌 K은행을 가다] 구형회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 “‘BSI’로 2030년 30위권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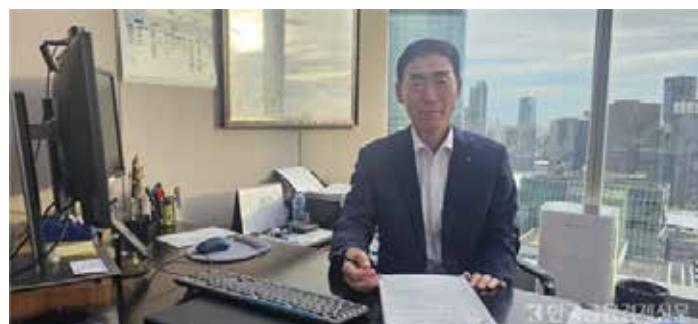
2015년 현지 은행을 인수하며 시장에 진출한 후발주자이지만,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치열한 영업경쟁과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 속에서도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올해 3분기에는 전년 대비 10% 넘는 순이익 성장과 30만명 넘는 고객을 확보했다.

또한 ‘BSI(Bigger & Stronger with Infinite Passion)’라는 슬로건 아래 향후 5년 내 자산규모 30위권 진입을 목표로, 현지 기업 및 리테일 시장 공략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2015년 11월 30일, 현지 은행 ‘인도네시아 메트로 익스프레스 은행(PT Bank Metro Express)’의 지분 98%를 인수하면서 2016년 5월 16일 공식 출범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전년도 12월에 인수했던 또 다른 현지 은행 ‘인도네시아 센트랄라마 내셔널 은행(PT Centratama National Bank)’을 신한인도네시아은행과 합병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같은 국가 안에서 다른 은행을 인수해도 인력과 시스템 등 내부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국가의 은행을 약 1년 사이에 두 개나 인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신한은행이 이 방식을 선택한 것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청(OJK)이 2개의 은행을 인수할 경우 인수은행 지분을 99%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외국계 은행이 1개의 은행만 인수하면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2016년 출범…자산 규모 58위권 중형은행 성장, 28개 영업망 구축  
내부통제·효율화 기반 영업 성장…3Q 순익 2281억루피아, 전년비 13.5%↑  
한국계·현지 기업 금융지원 중심…현지인 구성 RM팀 중심 기업금융 확대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SOL UI·UX 개선, 현지 핀테크와의 협업 전략  
구형회 법인장 “성장, 내부통제, 도전·혁신 바탕 2030년 30위권 진입 목표”**



▲구형회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 사진=김선재 기자

지분은 40%로 제한됐다.

출범 9년째인 올해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영업 중인 총 105개 시중은행 중 자산 규모 기준 58위의 중형은행으로 성장했다. 직원 수는 주재원 9명을 포함해 약 600명이고, 이중 320명이 본점 소속이다.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를 중심으로 총 28개의 영업망을 운영 중이다.

구형회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은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의 강점으로 철저한 내부통제와 효율화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영업 성장을 꼽았다. 그는 “2023년 초에 왔는데, 영업점 수가 39개였다. 그런데 지금은 28개다. 30%를 줄였다”며 “내부통제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사고로 이어지니, 분석을 해서 점포를 클로징했다. 약 740명의 직원이 600명대 초반으로 줄었고, 그러면서 인건비도 매년 상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 성장을 하고 있다”면서 “원거리에 있어 사고 개연성이 있거나 적자 점포들을 과감하게 30% 정도 줄이면서 효율화를 꾀하면서 그 힘을 결집해 영업을 늘리는 것이 신한인도네시아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이후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한국계 및 현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시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5개 대형은행이 현지 은행 산업 총자산에서 6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즉, 규모와 조달 경쟁력 측면에서 대형은행과 동일한 비즈니스를 해서는 어려운 환경인 것이다.

이에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시스템을 활용한 공급망 금융과 비대면 상품을 통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시장을 넓히고 있다. 현지화 차원에서 한국계 기업과 거래가 있는 현지 기업과 현지 우량 대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현지 인력으로 구성된 RM 팀을 중심으로 기업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은행 중심의 현지 은행산업에서 채널 한계 극복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인도네시아는 수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영향으로, 송금, 결제 등 핀테크 기반의 금융습관이 깊숙하게 자리 잡았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기업 펌뱅킹, 인터넷 뱅킹 등 기업을 위한 업무 대부분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고, 현지 개인 모바일 뱅킹인 ‘신한 SOL 인도네시아’에 QRIS, 교통카드(Flazz) 탑업(Top-up, 충전) 기능 등 현지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탑재했다.

또한 My Car Loan(자동차 담보대출), 급여소득자 신용대출, 현지 핀테크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채널링 상품을 중심으로 리테일 시장 영역을 넓히고, ‘신한 SOL 인도네시아’를 통해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감정 평가 및 여신 심사 프로세스를 강화했고, 이를 통해 우량 자산 위주로 여신 외형을 증대했다”며 “현지 금융 관행(practice)을 반영한 공급망 금융 상품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지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통한 리테일 영업 확대 및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대형



주식회사 거광이엔지  
PT GEO KWANG ENG

**SMC 욕실돌 (천장재)  
SMC 간접등 키트  
SMC 하부장  
SMC 욕조  
SMC 화분**



+62 811 2851 4200  
luum.indonesia  
luumvanity.com

WhatsApp

한인도네시아은행은 ‘인도네시아 SOL Pay’가 내년에 정식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 법인장은 “과거와 달리 핀테크만 사용하더라도 충전과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핀테크업체와 경쟁하기 보다는 채널링과 같은 협업 구도를 통한 원-원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며

“유저 프렌들리하고, UI·UX 가 잘 디자인된 SOL 뱅킹, 디지털 뱅킹을 주구하고 있다. 올해는 SOL의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UI·UX 개선에 추가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출범 10주년을 맞는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2030년까지 자산 규모 3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BSI’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계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현지 기업 및 리테일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해서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지주회사 형태로의 운영을 결정했고, 지난 9월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는 현지 금융당국의 중간지주회사 설립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OJK는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 복합기업 및 금융지주회사’ 규정 제30호를 통해 ▲20조루피아 이상 ▲계열사 3개 이상 혹은 100조루피아 이상 ▲계열사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금융사에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 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금융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면서 신한인도파이낸스(신한카드 현지법인)와 신한증권인도네시아(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신한투자증권 현지법인) 지

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지만,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과 협업을 통한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 법인장은 “밸류에이션을 위해 딜로이트 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우리가 (지분을) 받아오고, (대금을) 넘겨주는 작업을 내년 6월 정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주회사 도입의 취지에 맞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형과 손익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Bigger), 내부통제를 조직 구성원 모두의 참여로 강화(Stronger), 무한한 열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과 혁신(Infinite Passion)의 세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자산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금융의 시장 점유율 확대, 리테일 자산 성장, 조달 경쟁력 강화, 비이자 수익 기반 확대의 4가지 전략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현지인 부서장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성장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현지 직원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금융경제신문



## 케이에스팜, 동남아에 K-스마트팜 수출 거점 확보



▲케이에스팜 및 GUA 계약 체결식 모습/사진제공=케이에스팜

스마트팜 전문기업 케이에스팜(대표 강성민)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수출 붐업 코리아’에서 인도네시아 기업 PT. Global Utama Abadi(G.U.A)와 50만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구축 및 운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출 붐업 코리아는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한 글로벌 수출상담회다. 국내 유망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기술 수출 촉진을 위해 열린다.

케이에스팜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지난 9월 양사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케이에스팜 관계자는 “실증사업 및 현지 상업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약(MOA) 단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찌카랑 지역에 유리운실형 스마트팜 시설 및 식품 가공 공장 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케이에스팜의 데이터 기반 생육 관리 시스템을 현지 환경에 최적화해 적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수출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강성민 케이에스팜 대표는 “이번 계약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실질적 거점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스틴 리(Justin Lie) G.U.A 대표는 “우수한 스마트팜 역량을 갖춘 케이에스팜과 인도네시아 현지에 스마트팜을 구축하게 됐다”며 “당사의 건축 및 부동산 역량이 더해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케이에스팜은 국내외 스마트팜 구축·운영, 식품 가공, 글로벌 유통, 6차산업 융합사업 등을 전개 중인 업체다. 사우디 시벌 온실 사업으로 오는 12월 한국형 스마트팜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해외 스마트팜 실증 사업으로 말레이시아에서도 스마트팜 실증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AI(인공지능) 농업 플랫폼 ‘AI 농사친구’와 스테비아 토마토 생산 기술 등으로 차세대 스마트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 기후위기 대응형 농업용수 관리…협력 기반 강화

인도네시아 수자원청 드위푸 완토로 청장은 “한국의 통합 안전관리센터 모델과 댐 안전 진단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향후 마스터 플랜 단계부터 한국의 자문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형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국 협력의 분기점



▲농식품부·농어촌공사·인도네시아와 농업용 댐 안전관리 ‘협력 강화’에 나섰다. ©농어촌공사

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의 ICT 기반 안전관리 모델이 인

도네시아 전역의 노후 댐 문제 해결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농식품부·농어촌공사는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2026년 상반기 타당성조사와 협의 의사록(RoD) 체결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프레시안]

##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 Pos Bitung 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 GS칼텍스 ·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 팜유 정제시설 준공



▲제공 GS칼텍스

GS칼텍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 ARC(AGPA Refinery Complex)가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 구축한 팜유 정제시설이 마침내 완공됐다. GS칼텍스는 20일, 전날(19일·현지시간) 발릭파판 현지에서 준공

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허세홍 GS칼텍스 사장과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투자부, 발릭파판시 정부 관계자 및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업계 주요 인사 등 100여 명

### 연 50만톤 규모… 바이오디젤 밸류체인 구축으로 저탄소 사업 경쟁력 강화

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원료·생산 경쟁력을 겨냥해 2023년 합작법인 ARC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5월 발릭파판 산업단지 내 30만m<sup>2</sup> 부지에 약 2,60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착공한 바 있다.

이번에 문을 연 팜유 정제시설은 팜 원유(CPO)를 연간 약 50만t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팜 정제유와 식용유지, 그리고 바이오디젤 원료(팜 스테아린 등)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를 통해 GS칼텍스는 팜유 원료 확보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통합 바이오디젤 밸류체인을 확보하

게 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자사 농장에서 생산한 팜 원유를 ARC에 공급하고, 정제된 팜유 제품을 인도네시아 국내외, 한국, 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로 판매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추진한다. GS칼텍스는 공정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정제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산된 바이오디젤 원료 제품을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수소,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저탄소 신사업과 함께, 바이오 밸류체인 경쟁력을 강

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견고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제시설 가동은 양사가 추진하는 아시아 바이오 시장 확대 전략과 국내 바이오연료 수급 안정화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해사신문



## 안녕하십니까, 부산인도네시아센터(BIC) 김수일 이사장입니다.

저희 BIC 산하 인도네시아 법인인 PT.BIC JAYA INDONESIA(BICJI)가 금번 인도네시아 노동부(DEPNAKER)로부터 “1.산업환경 측정(Keselamatan & Kesehatan Kerja:K3), 2. 근로자 건강검진(MCU), 3.사내 클리닉(In House Clinic) 운영 등” 산업환경 보건 부문의 검사 대행기관 인가를 취득하고 활동을 개시하게 돼, 우선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BIC는 1985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에 의해 부산에서 부산인도네시아문화원(BICC)으로 설립되어, 초기에는 한-인도네시아 간 문

화 교육 교류 증진에 기여했으며, 1990년대 초~2000년대 초 기간에는 부산, 경남 북, 울산, 제주를 관할하는 주부산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HCIB)으로 승격돼 비자 발급, 무역 및 투자 서류 공증 등 영사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다수의 봉제 신발 등 분야 기업들과는 귀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BIC는 부산에서는 “인도네시아정부 할랄청(BPJPH)으로부터 한국대표부 겸 할랄인증서 발급 대행기관(LHNL)”으로 지정

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할랄인증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산업환경 보건 부문 검사 대행 기관(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한 K3 업무와 동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오랜 협력관계, 그리고 산업환경 보건(K3) 부문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인 한국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심도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되었으며, 덕분에 진출

후 단 기간 내에 인도네시아 노동부로 부터 동종 업종 유일의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으며, 이어서 NIKE, ADIDAS, NB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인정하는 인도네시아 국공립 산업환경보건 기관들인 “노동부직할 작업환경보건원(BALAI BESAR K3)”, “자카르타시립 작업환경보건원(HIPERKES JKT)” 등과 협력파트너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PT.BIC Jaya Indonesia는 산업환경보건 부문 유일의 한국계 측정 검사 대행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사

명감을 갖고, 고객사 생산현장의 안전과 위생,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가 생산성과 경쟁력, CSR 기업 이미지 제고의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신속 정확한 측정 검사를 위해서는 당사 기술사들의 현장 답사와 상담이 필요하니,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T.BIC JAYA INDONESIA  
WISMA STACO(Lt.6), JL.Raya Kasablanka, Jkt  
T:021-3049-0114. www.bicjayaindonesia.com



##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www.bicjayaindonesia.com](http://www.bicjayaindonesia.com)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치정  
(1993~2007)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관광부, 노동부, 할랄청, 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단지 지분 30% 매각 추진…17억 달러 규모 예상

국부펀드 다난타라와 협상 난항…당초 35%에서 25~30%로 조정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자회사 '롯데 치레곤' 지분 30% 인수를 추진하면서 지분율과 가격을 두고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리푸탄6은 27일(현지시각) 다난타라 인도네시아 최고경영자(CEO)로 산 로슬라니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지분 25~30% 사이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지분율 35%→25~30%로 하향 조정

다난타라는 애초 롯데 치레곤 지분 35% 인수를 제안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25~30%로 범위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산 CEO는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 전에 법무·재무·기술 등 전반에 걸친 정밀 실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현재 거래 예상 금액은 약 17억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자회사 '롯데 치레곤' 지분 30% 인수를 추진하면서 지분율과 가격을 두고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미지=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달러(약 2조 4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로산 CEO는 "투자 금액도 계산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치 공개는 유보했다. 지금 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는 다난타라가 국영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치레곤은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치레곤에 건설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다. 2019년 착공해 나프타분해시설

(NCC)과 에틸렌글리콜(MEG) 공장, 폴리에틸렌(PE) 공장 등을 갖춘 복합 석유화학 단지로, 롯데케미칼은 이 프로젝트에 총 40억 달러(약 5조 8500억 원)를 투자했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롯데 치레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 다난타라, 전기차 배터리·철강 투자도 병행

다난타라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부펀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과 같은 원자재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난타라는 이를 위한 핵심 투자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롯데 치레곤 지분 인수 외에도 다난타라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로산 CEO는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가 20억 달러(약 2조 92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준비 중이라며 "서울에서 에코프로 경영진과 직접 만나 인도네시아 투자 계획과 다난타라의 지분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철강 기업 포스코와 국영 철강사 크라카타우스틸 간 협력 확대 방안도 협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다난타라의 공격적 투자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조업 기반 강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이코노믹]

## 월간 건설신문 창조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건설신문 창조는 건설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 1. 개요

주요대상 : 건설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 2. 광고혜택

년간계약을 기본으로하며 계약시 광고디자인 무료

기업 홍보기사 전면으로소개

###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21 1122 8827

e-mail : khong3000@gmail.com



김재훈의 세무상식

## 2025년 12월을 마감하며



김 재 훈 대표  
연말 국외 계좌 잔액, 국내 계좌 잔액, 자랑 및 부동산 구매 내역, 주식 취득등 12월말 재산 내역과 24년도 신고된 재산 내역을 비교하여 순재산 증가액이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외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세 공제 내역 확인서도 확인하여야 한다.

끝으로 2025년도는 여러 세무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본격 적용된 첫해로, 12월 점검이 매우 중요하며, 준비가 잘 된 납세자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2026년 규정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1. 2025 사업연도 법인세(PPh Badan) 사전 점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는 2026년 4월이지만, 2025년 결산을 앞두고 다음 핵심 항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1) 비용 손금 산입 가능 여부
- (2) 신고된 원천세(PPh 21/23/26) 및 부가세(PPN) 항목과 재무제표상 항목에 대한 일치 여부
- (3)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서화
- (4) 부채 비율
- (5)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인식

### 2. 2025 년도 개인소득세(PPh OP) 사전 점검

25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는 26년 3월말까지이지만, 25년 12월말 기준으로 아래 사항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세자문관 및 고총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kimjhoon@bngconsulting.co.kr

##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제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건설, 토목, 플랜트****PT.HESSA**

자카르타 0821 1464-1343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8-4686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060-7257

**PT. POWERTECH**

Engineering &amp;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현대건설**

Engineering&amp;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SK ECO PLANT**

자카르타 021 2709-4662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삼화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2988-0418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PT. ALAM DUNIA ENG & CONST(ADEC)**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땅그랑 021 5579-8505

**PT.SAMJIN**건축, 주택, 플랜트, 하이테크,  
EMP방호,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와  
자카르타 021 2245-0670**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PT. ELJINDO**토목, 일반건설, 공장증축  
자카르타 021 7883-3357**PT. SPACE TECHNOLOGY**플랜트 및 공장 설계/제작/시공/O&M  
찌까랑 021 8990-2215**PT. P&I INDONESIA**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IUPLT(Solar Plant))

자카르타 021 2782-2600

**PT. SSA**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62 812 1955 -5736**PT. DAEAH E&C INDONESIA**건축, 토목, 플랜트  
반튼 021-5574-1492**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튼 0254 402323**SHINHWA TECHNO PLANT**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PT. UTAMA JAYA TEKNIK**Engineering, Construction &  
Manufacture  
땅그랑 021 5577 4507~09**PT. HANS JAYA UTAMA**건축,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PT. WOOIL INDONESIA**플랜트, 기계, EPC  
땅그랑 021 5935-0229**PT.HAECHANG DEVELOPMENT**토목(터널)  
자카르타 0811 610 3042**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딕스토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딕스토리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기초정보를 본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부터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khong3000@gmail.com, 0821 1122 8827

**PT. KMU**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0813 1939 2260

**INI GEO**  
친환경 옹벽, 사면보호, 벽면녹화  
자카르타 021 581-4742

**PT. KUMYI PLANT INDONESIA**  
JAKARTA SELATAN  
자카르타 (021) 726 9976

**PT. KUMGANG HYUNDAI INDONESIA**  
커튼월 및 창호 방화도어, 셔터, 자동문 각종 팬넬 공사  
땅그랑 021 5568 5408

**PT. KSK BANGUN KARYA**  
건설,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591-2718

**PT. Muns Cipta Bangun**  
토목, 철골, 건축, 인테리어  
땅그랑 021 5541-747

**PT. BUANA INSKONSI JAYA**  
Waste Energy Plant, Electrical, HVAC  
땅그랑 021 3973-1528

**PT. SUNG HWA PLUS**  
종합건설업  
자카르타 021 4064-2114

**PT. INKO JAYA KONSTRUKSI**  
종합건설업  
자카르타 021 8263-1843

**공단 및 지사**

**한국 수자원 공사**  
자카르타 021 5140-0025

**한국 농어촌 공사**  
자카르타 021 7591-3414

**국가철도공단**  
자카르타 021 5058-8812

**건설공제조합**  
자카르타 021 5290-4042

**산업인력공단**  
자카르타 021 7918-6012

**KIND**  
자카르타 0851 2192-5762

**ENGINEERING**

**PT.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유신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2409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PT. P-CRANE 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SAMSUNG C & T Corporation**  
자카르타 021 2988-0418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튼 0254 848-7678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PT. MULTI PERSADA**  
Construction & Engineering , Civil,  
M&E, Treading  
땅그랑 021 5578-0702

**PT. PAJAR EKA YOU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PT. FAJAR EKA YOU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PT. JAYA TEKNIK KONSTRUKSI(Besar/PMDN)**  
Engineering & Construction  
반튼/세랑 021 5574-1492

**PT. VISION AND YOUNG**  
전기공사, 자동제어공사, 환경공사  
땅그랑 021 2904-7301

**건축설계 사무소**

**정립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자카르타 0852 1561-9583

**PT.MSP(MAKMUR SISTIMINDO PERKASA)**  
자카르타 021 721 0356

**전기**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제일연마**  
Resinoid Grinding / Precision Grinding  
Resin Bonded Wheels Disc  
찌까랑 021 8991-1071

**LS Electric (구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PT. SAMJIN INDONESIA ENC**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자카르타 0812 8293-0448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땅그랑 021 5940-2939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  
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PT. YOC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U-Lapp Cable), Elec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iding  
땅그랑 021 5949-2764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PT. WOOJIN CONSTRUCTION**  
Electrical, Mechanical, Fire alarm,  
자카르타 021 8991-3049

**PT. YUNSUNG INDONESIA**  
전기&소방  
찌까랑 021 8263-1844

**건축자재**

**LS전선**  
끼라왕 021 3973-3988

**PT.DONGSEO FURNITURE**  
U-PVC 우든파니처 우든 문  
끼라왕 021 591-5631/37

**PT.DWI MITRA ANUGRAH**  
에폭시, 바닥시공  
021 880-3515, 0812 100-0055

**PT. BITUTEK**  
지붕자재 아스팔트 쉼글, 방수시트 제조  
찌부부르 021-2906-0202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o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PT. TOPSCO STEEL UTAMA**  
KRAKATAU POSCO  
후판 열연 건자재 공급  
찌레곤 0813 8039 7748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땅그랑 021 5428-7777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b

**채움디자인**  
Design & Build  
자카르타 021 8946 9398

**PT.WELLZ-IN(웰즈인)**  
Interior Furnitur & Architecture  
자카르타 021 2912-4010

**PT,DESIGN ACE**  
Creative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urniture, Sign  
자카르타 021 7590-8858

**PT,DECOREE INTERNATION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ve Design  
자카르타 021 8066-7038

**INI GALLERY**  
INTERIOR & FURNITURE  
자카르타 021 581-4742

**PT,DUNIA INDAH MAKMUR**  
K-Wallpaper & Wood Vinyl Flooring  
찌부부루 021 8431-0753

**PT. EOK ECO INDONESIA**  
인도어, 아웃도어, 인테리어  
자카르타 021 7919-2426

**PT. INDKOR**  
Interior & Total Solution  
찌부부루 021 8430-7773

**PT. KES INDONESIA**  
Interior & Exhibition  
땅그랑 021 558-2105

**LIVING A&I**  
Architecure & Interior  
자카르타 021 7278-0704

**YOU & YOU INTERIOR**  
021 719-1285

**포워딩**

**JASON LOGISTIC INDONESIA**  
Air Cargo, Sea Cargo, Warehouse,  
Customer Service  
자카르타 021 4585 5919

**F1 LOGIX**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797 6237

**ABADI TRANS LOGISTIC**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4683 6025

**PT. ACE MULTITRANS CARGO**  
International Air and Sea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260 4233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주)소리항공**  
**PT.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PT.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PT.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PT.PENASCOP LOGistik  
TRANSIAGIE**

항공/해상, 수출입통관  
자카르타 021 2867-3944

**PT.LogisALL Global Indonesia**  
자카르타 021 8066-7220

**PT.JUST IN TIME**  
자카르타 0813 1030-4644

**PT. Pertama Logistic Service**  
땅그랑 021 558-6446

**PT. KORNET LOGISTIC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항공/해상 수출입 통관  
자카르타 021 4587-7350

**PT.GLOBAL CHEM INTERNATIONAL  
LOGISTIC & TRADING**  
찌카랑 021 2956 3356/57

**ITL**  
INTERNAS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자카르타 021 5011 2120

**PT.KGL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56 3356/57

**PT.BlueRay Indonesia Indonesia**  
Door To Door 물류회사  
자카르타 웃츠암 +82 10 5259 0759

**증장비, 기계**

**현대건설기계**  
증장비  
자카르타 021 5290 1493

**KOTRACK**  
증장비  
자카르타 82 10 8732-2928

**PT.SUMA SUKSES SEJAHTERA**  
자카르타 021 522-2241

**DAEWON CRANE GLOBAL**  
땅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PT.CNB MACHINERY INDONESIA**  
건설관련 기계판매  
땅그랑 021 5572-1090

**컨설팅**

**OK 컨설팅**  
인허가, 비자, 세무, 부동산  
자카르타 0852 8185-5551

**두왕 컨설팅**  
법인설립, 기업법률자문 전문  
자카르타 021 2941-1043 (ext 102)

**WINNERS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5012-3277

**반석 컨설팅**  
세무회계,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9193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9-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땅그랑 021 5577-6454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땅그랑 021 558-1616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2912-6495/6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799-6182

**통신, CC TV, 보안**

**PT. KINEZ**  
인터넷, 통신, CCTV  
땅그랑, 짜께탕, 브카시, 스미랑, 자카르타, 보고르와  
021 3002 9000

**PT. GLOBAL SUMBER JAYA**  
CCTV/PABX/Access Control/  
자카르타 021 7251-606

**PT. D&B NETWORK**  
자카르타 021 2938-5398

**컴퓨터 원**  
CCTV, Computer  
땅그랑 021 5579-6399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인력관리, 용역**

**PT.AGUNG SINAR BUNGKUK**  
인력파견 관리, 경비, 생산직, 사무직등  
자카르타 021 8952 7463

**PT.Cahaya Research Indonesia**  
관리직 인력 헤드헌팅, 사무직 물류 소  
매인력 파견, IT  
자카르타 0813 1509 9567

**건물관리, 용역**

**ECONE**  
건물관리, 용역, 방역, 살균,  
자카르타 081 1111 8057

**작업환경측정 (K3) 대행기관**

**PT.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  
(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  
부문  
자카르타 021 3049 0114

**재인니 한국 건설협회 가입 및 문의**

박건우 부회장 (0815 1902 4123)

**인도네시아에 이동식 도로포장 품질관리 실험실 공여**

현장 친화적 도로포장 품질관리  
기반 마련 지원국토교통부 국제  
개발협력사업(ODA) ‘인도네시  
아 디지털 · 그린 도로 건설 기  
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한  
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컨소시  
엄은 지난달 18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PU)에 이동식 실험  
실(Mobile Laboratory)을 공식 전  
달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체  
계적인 포장 품질관리 역량 강  
화와 지속가능한 도로 건설기  
술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  
원이 주관하고 대신플랜트산업  
(주), 한국도로협회, 에이티맥스  
(주)가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반동 공공사업부 정  
사에서 열린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공여된 이동식 품질관리  
실험실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의 현장 기반 도로 포장 품질관



리 역량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된 실험실은 현장에서 즉  
각적인 포장 관련 시험 수행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으며, 시료 채취, 시  
험, 분석을 현장에서 바로 수행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에서는  
이동식 실험실을 통해 정확하  
고 일관된 품질평가, 신속한 데  
이터 확보, 안전한 현장 품질관  
리 지원으로 인도네시아 도로  
포장공사의 운영 신뢰도를 높이  
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여형구 수석교문

은 개회사를 통해 “이동식 실  
험실을 통해 넓은 국토와 여  
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  
아 도로포장 현장에서 품질관리  
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  
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인도네시아대한  
민국대사관 조성태 국토교통장  
사관은 ‘공여된 기자재를 이용  
한 현장에서의 즉시 점검을 통  
해 도로 인프라의 효율성과 품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  
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공공사  
업부 로이 리잘리 안와르(Roy  
Rizali Anwar) 도로국장은 “이  
동식 실험실의 도입이 현장 시  
험과정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  
일 것”이라고 하며, 아스팔트  
포장, 골재,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현장에서 직접 시험하여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보고까  
지 가능한 시설로 평가했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

**PT. MIRAN METAL INDONESIA**

금속 절단, V-컷팅, 절곡 및 기계제작

Steel Door & Frame / Trench & Cover / Gate & Handrail / Ladder



Jl. Raya Serang Km 16, Sukamulya, Cikupa, Tangerang  
Tel : 021-5969-691, E-mail : pt.miranmetalindonesia@gmail.com

**JTCC**

JT Construction Chemicals

Injection System  
(Polyurethane, Epoxy, Acrylic)

Waterproofing  
(Sheet, Polyurethane, Polyurethane)

Flooring  
(Epoxy, Polyurethane, Polyurethane,  
Self Leveling)

Grouting  
(Cement, Epoxy)

Painting  
(Anti-Fire, Interior, Exterior)

Protective Coating  
(Chemical, UV-resistance)

Sealant  
(MS, PU, Silicone, Polyurethane)

Structural Strengthening  
(Carbon Fiber, Glass Fiber)

Polyurea & Foam Machine  
(PUSMAK)

**고품질 건설에 전념합니다**

지속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합니다.



Jl. Swadaya 2 No. 114 RT 002/RW01  
Kec. Mustika Jaya, Kel. Mustika Sari, Bekasi, 17157

Telp : (021) 82740458

Website : www.id-jtcc.com

marketing@id-jtcc.com

## 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찾아 제품 설명회 “중소·중견기업 시장 진출 적극 지원”

한국중부발전이 협력기업과 인도네시아에서 제품 설명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3박 5일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협력기업과 공동 연구개발한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제품 현지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에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운영 중인 찌례본 1·2호기, 자와 9·10호기 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지 법인 측에서 기술 설명을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참가를 희망한 연구개발 수행기업 6개사(에스티씨, 동우유체기계, 코페, 무하기술, 동서산업, 디엠티)가 동행해 맞춤형 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중부발전



▲ 참석자들이 찌례본 1·2호기 기술개발 제품 인도네시아 설명회 종료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중부발전)

연구개발(R&D) 제품의 사업화 핵심 목표인 ‘해외판로 개척 및 현장 적용’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된 ‘실증형 해외 사업화 활동’이다. 중부발전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실제 발전소 설비에 적

용 가능한지 기술력을 검증하고 기술 상담을 주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했다. 현지 관계자는 “현지 설비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기술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인상적이었

다”며 “테스트베드 적용을 위한 실무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 2차례의 설명회와 판로 개척 간담회를 통해 LED 통전표시기, 가스재열기 용 열소자, 신축이음관, 벨브 패킹류 등의 품목에서 약 300만달러(한화 약 42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중부발전은 이번 성과가 2026년 실계약 및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발전설비에 적용이 가능한 유망 기술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베트남, 미국, 유럽 등 중부발전이 진출한 해외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

번 설명회는 협력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제품을 해외 발전시장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한 최초 시도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을 함께한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발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켓인]



# HANSHIN

## 에어 콤프레서



### TANGERANG 본점

유성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 CIKARANG 영업소/AS점수

김동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 JEPARA 영업소/AS점수

정연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